

韓日關係史研究 제68집

명성사(明成社) 일본역사교과서의
내력과 내용 분석

송 완 범

韓日關係史學會

THE KOREA-JAPAN HISTORICAL REVIEW

2020年 05月

명성사(明成社) 일본역사교과서의 내력과 내용 분석*

송 완 범**

【국문초록】

본고에서 다루려는 대상은 2002년에 일본문부과학성의 검정을 마치고 2012년에 명성사라는 출판사에서 인쇄, 발행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인 『최신일본사(最新日本史)』이다. 이 명성사 역사교과서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교과서는 2002년 검정통과 당시부터 한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이유는 “「독도」를 명확히 일본의 영토로 기술”한 최초의 교과서였기 때문이다. 그럼 왜 명성사 역사교과서는 '독도'에 대한 노골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두어 가지 성과를 얻었다. 먼저 명성사와 '일본회의'라는 우익조직과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두 기관의 관계가 대단히 밀접함을 알았다. 또한 『최신일본사』의 한반도 관련 내용 전체의 구조를 상세히 살펴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최신일본사』의 한반도인식의 사례들을 검출하여 분류하는 가운데 명성사 일본역사교과서의 지향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2012년에 출판된 명성사 일본역사교과서는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우경화하는 일본사회의 한 척도로서 여겨질 만한 것이었음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 본고는 흥익재단이 지원하는 일본 역사교과서 분석사업 [일본 초중고교과서 왜곡실태 분석 및 대책과 콘텐츠화를 위한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준비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동 재단의 후의에 감사한다.

**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

【주제어】

명성사, 일본회의, 최신일본사, 한반도관계, 한반도인식

◆ 차례

1. 머리말
2. '명성사'와 '일본회의'
3. 『최신일본사』의 한반도관련 내용구성
4. 『최신일본사』의 한반도인식 사례분석
5. 맺음말

1. 머리말

본고에서 다루려는 대상은 2002년에 일본문부과학성의 검정을 마치고 2012년에 명성사라는 출판사에서 인쇄, 발행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인 『최신일본사(最新日本史)』이다. 원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지리와 역사과목이 연계된 것이다. 우선 역사교과서에는 『세계사』와 『일본사』 교과서가 각각 A, B로 나뉜다. 그리고 지리교과서는 A, B 외에 『지도교과서』가 있다. 이중 명성사에서 『일본사 B』만 출판하고 있다. A와 B의 차이는 전자가 근현대의 범위만을 다루는 것에 비해, 후자는 고대부터 근현대까지를 다룬다. 그러다 보니 교과서 수업시수도 보통 A는 2단위이고 B는 4단위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명성사 역사교과서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교과서는 1980년대 이래 일본역사교과서과동 때 문제가 되었던 『신편일본사(新編日本史)』의 개정판이기도 하다. 또한 2002년 검정통과 당시부터 한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독도(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도 한다.)를 명확히 일본의 영토로 기술”한 최초의 교과서였기 때문이다. 현재 명성사 교과서로서 유포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15년

부터 출간된 것이다.¹⁾ 이처럼 본고의 분석 대상은 이와 같은 경위를 가진 명성사 교과서의 구판이긴 하지만, 이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전면적 분석이 시도된 바는 없었던 것 같다.²⁾ 그래서 이번 논고에서는 2012년에

-
- 1)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명성사 최신판의 제목을 살펴보면 이번 분석판과 거의 동일하다(명성사 홈페이지 <https://meiseisha.com/> 검색일 2020년4월30일). 다만, 구판의 제4편 근대/현대의 마지막 '제16장. 현대사회와 문화의 창조'가 신판에서는 '제16장. 점령통치와 일본의 독립'과 '제17장. 고도경제성장과 일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일본의 독립'과 '고도경제성장'이라는 문구에서 보듯이 미국으로부터의 독자성을 의식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 2) 종래의 명성사 역사교과서에 관련하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문정민, 『일본 고등학교 일본사 교과서의 고대 한일 관계사 서술의 변화 양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5 ; 이찬희, 『일본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검정규정 및 역사교과서 검정결과』, 한국교육개발원, 2002 ; 이찬희, 『일본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관련 내용』, 한국교육개발원, 2002 참조. 그 외 일본역사교과서와 관련하는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하종문 역(永原慶二 著), 『20세기 일본의 역사학』, 삼천리, 2011 ; 한용진, 『근대 이후 일본의 교육』, 도서출판 문, 2010 ; 이기원, 오성철 역(辻本雅史 외 著), 『일본 교육의 사회사』, 경인문화사, 2011 ; 이권희, 『국가와 교육』, 케포이북스, 2017 ; 한국사연구회/한일관계사학회 편 『일본 역사서의 왜곡과 진실』, 경인문화사, 2008 ; 한일관계사학회 편 『전환기 일본교과서 문제의 諸相』, 경인문화사, 2010 ; 장신 편, 『조선총독부교과서총서(역사편)』 1-6권, 청운, 2005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편 『(제2기)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1-7권, 경인문화사, 2010 ; 中村紀久二, 『教科書の社會史』, 岩波新書, 1992 ; 花井信, 『近代日本の教育實錢』, 川島書店, 2001 ; 松島榮一, 『歴史教育の歴史と社會科』, 青木書店, 2003 ; 滋賀大學附屬図書館 編 『近代日本の教科書のあゆみ』, サンライズ出版, 2006 ; 小森陽一 외 編 『歴史教科書何が問題か』, 岩波書店, 2001 ; 中村哲, 『東アジアの歴史教科書はどう書かれているか』, 日本評論社, 2004 ; 歴史教育者協議會 編 『歴史教育50年のあゆみと課題』, 未來社, 1997 ; VAWW-NETジャパン 編 『ここまでひどい「つくる會」歴史・公民教科書』, 明石書店, 2001 ; 이규수, 「일본의 근대 학문과 국사 편찬」, 『역사문화연구』 50, 2014 ; 동북아역사재단, 『신편 새 역사교과서(自由社, 2009) 분석보고서』, 2009 ; 줄고, 「일본국정역사교과서로 보는 '민족주의'」, 『일본사상』 14, 2008 ; 동, 「조선총독부 초등국사교과서의 고대사 서술에 대한 일고찰」, 『일본연구』 23, 2015 ; 동, 「일본근대검정교과서의 고대 한반도관

일본 명성사에서 인쇄하고 발행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최신일본사』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본문으로 들어가 제2장에서는 명성사와 일본회의에 대해 조사할 것이다. 명성사와 일본회의를 각각 살펴보는 가운데 두 조직 간의 관련성이 노정되리라 본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최신일본사』의 한반도관련 내용 구성을 엿볼 것이다. 이어 제4장에서는 최신일본사의 한반도인식의 사례들을 검출하여 분류하고 그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 제5장의 맺음말에서는 전체를 간단히 요약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하는 것에 의해 21세기 들어 가속적으로 우경화하는³⁾ 일본사회를 들여다보는 한 척도로서 명성사 일본역사교과서를 후원하는 관련 우파단체들의 선

련기술 분석, 『일본연구』 29, 2018 ; 현명철, 「한일 역사 갈등의 뿌리를 찾아서」 『한일관계사연구』 40, 2011 ; 최양호, 「일제하 조선총독부 편찬 초등용 국정 국사교과서의 변천」, 『교과서연구』 6, 1990 ; 이충호, 「일본 역사교과서 서술체계의 변화」, 『역사교육론집』 32, 2004 ; 장신, 「한말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발행제도와 역사교과서」, 『역사교육』 91, 2004 ; 허재영,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교과서 정책과 교과서 편찬 실태」 『동양학』 46, 2009 ; 이영식, 「최근 한일 국사교과서의 고대사 서술」, 『동북아역사논총』 17, 2007 ; 신형식, 「일본역사 교과서의 전근대관련 서술의 문제점」, 『백산학보』 61, 2001 ;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대회자료집 『2011년도 김정통과 일본중학교 교과서 심층 분석』, 2011 ; 연민수,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古代史 서술과 歷史認識」, 『한국사연구』 129, 2005 ; 전상균, 「근대 이전의 '征韓」, 『일어교육』 26, 2003 ; 이근우, 「『新しい歴史教科書』의 역사인식과 선사·고대사 서술」, 『일본사학연구』 7, 2008 ; 한일관계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일본 역사교과서의 분석과 역사교육의 실태』, 2011 ; 나행주,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역사관과 고대사 서술」, 『동국사학』 51, 2011 참조.

- 3) 일본우경화의 한 계기로 2011년에 일어난 이른바 '3.11 동일본대지진'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줄고 외, 『저팬리뷰2012-3.11 동일본대지진과 일본-』, 도서출판 문, 2012 ; 동, 「한·일관계의 다양성- '안보법안'과 '3.11 동일본대지진' -」, 『안보현안분석』 7월호, 2015 ; 동 외, 『일본의 재해학과 지방부흥』, 인터북스, 2016 ; 동, 學習院女子大學國際學研究所叢書 『調和的秩序形成の課題』, お茶の水書房, 2016 참조.

행 행로를 살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명성사’와 ‘일본회의’

보통 한일 간의 문제에서 역사상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이라고 하면 ‘역사교과서문제’ ‘독도문제’ ‘야스쿠니문제’ ‘중군위안부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명성사 역사교과서는 위 네 가지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이 이유는 네 가지 문제 중에서도 특히 명성사 교과서가 검정통과 당시에 내건 ‘독도문제’를 일본영토라고 선명히 내건 최초의 역사교과서였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명성사 역사교과서의 배경에 ‘일본회의’라는 현실 정치와 밀접한 단체가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⁴⁾ 여기서 위의 모든 문제를 소상히 하기는 어렵기에 이하에서는 명성사 역사교과서의 전사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기로 하자.⁵⁾

그럼 먼저 일본 역사교과서문제의 시작은 1982년의 일본교과서 검정으로 시작된다. 이 교과서문제의 해결을 위해 같은 해 6월 일본은 “교과서 검정 시에 근린 아시아 제국과의 관계에서 근현대 역사적 사상(事象)의 취급에 있어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관점에서 필요한 배려를 한다.”는 ‘근린제국조항’을 관방장관 담화로 발표한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공식적인 정부 방침은 1997년 이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으로 대표되는 ‘자학사관’ 혹은 ‘수정주의 사관’과 충돌하게 된다. 이러한 퇴행적인 사회 변화의 배경에는 1995년에 일어난 ‘한신

4) 藤生明, 『ドキュメント 日本會議』(ちくま新書1253), 筑摩書房, 2017, 1-198쪽 참조.

5) 줄고, 「모색하는 2010년」, 고려대학교일본연구센터 현대일본총서07 『저팬리뷰2010』, 도서출판 문, 170~185쪽 참조.

/아와지 대지진'과 '오오진리교에 의한 무차별 사린가스 테러사건' 등과 같은 자연적/인위적인 재난(재해) 상황이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새역모'는 부상사(扶桑社)라는 출판사에서 2001년에 『새로운 역사 교과서』, 2005년에는 『개정판 새로운 역사교과서』와 같은 의도 하에 만들어진 『공민교과서』를 발간하면서 일본 사회의 보수화와 우경화에 편승한다. 하지만 당시의 일본사회는 아직 건전한 시민운동세력이 제목소리를 내고 있었기에 해당 교과서의 채택률은 0.039퍼센트와 0.39퍼센트에 그쳤다. 이와 같은 실망스런 결과에 '새역모'는 분열하게 되는데, 그 일부가 나와 새로이 2006년 '일본교육재생기구'를 만들고, 다음 해에는 '교과서개선모임'을 만든다. 이 조직은 나중에 부상사의 자회사로서 육봉사(育鵬社)를 만들어 독자적인 교과서 제작을 시작하게 된다.

한편 원래의 '새역모' 그룹은 2008년에 새로이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2009년 자유사(自由社)에서 출간된 『신편 새로운 교과서』이다. 이 자유사 교과서의 자매편이며 시판본이 바로 『일본인의 역사교과서』이다.

요컨대, 새역모가 분열하면서 원래 모임은 부상사와 자유사판 교과서로 이어지고, 분화된 그룹은 육봉사판 교과서를 만들게 된 것이다. 현재는 부상사와 육봉사가 각각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오고 있다. 여기에 1997년 이후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현재적 계승자로 부각된 것이 바로 지금의 명성사판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인 『최신일본사』이다. 그렇다면 부상사, 육봉사, 명성사의 역사교과서는 그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부상사와 육봉사는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고 명성사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앞의 세 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편찬하는데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단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먼저 부상사는 원조 '새역모'가 배후이다. 다음의 육봉사는 '새역모'에서 분화한 '일본교육재생

기구'가 존재한다. 마지막 명성사의 배경에는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일본회의'가 있다.

'일본회의'라는 단체는 어떤 모임인가를 살펴보기에 앞서 명성사를 조금 더 들여다보자. 명성사는 일본의 출판사이면서 주로 출판하는 저작은 일본의 황실, 일본문화, 시국 등을 주제로 한 것이 많다. 창업자는 이시이 고이치로(石井公一郎, 1923~현)⁶⁾로 명성사 관계자 중에는 '일본회의'에 관여하는 사람이 많다. 한국에서 명성사가 알려진 계기는 2002년 일본문부과학성의 교과서검정을 통과할 때 "독도(일본 다케시마)를 명확히 일본의 영토로 기술"한 최초의 일본역사교과서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럼 '일본회의'라는 곳은 어떤 단체인가? '일본회의'는 1997년에 설립된 일본의 극우보수단체로서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전신이다. 주로 주장하는 내용은 "원호법 법제화, 황실경사 축하, 교육의 정상화와 역사교과서의 편찬사업, 종전 50주년 전몰자 추도사업, 자위대 PKO활동 지원, 신헌법, 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실현,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다." 등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일본회의'의 성격은 극우적 성향을 띠고 있다. 그리고 국회에는 초당파에 의한 "일본회의국회의원간담회"⁸⁾를 두고 있다. 게다가 일본회의는 현 수상인 아베신조(安倍晋三)의 강력한 지원군이다.

6) 일본의 교육자이자 실업가로 명성사의 초대사장을 지냈으며 브리지스톤사이클의 회장으로 일본회의 부회장을 지낸 후 현재는 고문으로 있다.

7) 일본회의(*Japan Conference*)는 1997년에 설립된 일본의 보수주의, 내셔널리즘단체이다. 현재의 회원 수는 약 4만 명, 일본의 행정구역인 47도도부현(都道府縣) 모든 곳에 본부가 있고 그 하루 행정단위에 240여개의 지부가 있다. 회장은 다쿠보 다다에(田久保忠衛), 그 외에 '일본회의국회의원간담회'와 '일본회의지방의원연맹' 및 '일본여성회'는 일본회의의 관련단체이다. 자세한 사항은 일본회의 홈페이지(<http://www.nipponkaigi.org/> 검색2020.03.30.) ; 주4) 참조.

8) <https://www.nipponkaigi.org/category/activity/activity-14> ; 주4) 참조.

‘일본회의’는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 시절에 고등학교역사교과서로서 원서방(原書房)에서 나온 『신편일본사』를 출판한 적이 있다.⁹⁾ 그러나 명성사 고등학교역사교과서는 그 후신인 썸이다. 1986년의 『신편일본사』는 「황실에의 경의를 배양한다.」 「신화를 통하여 건국을 이해한다.」는 방침에 기초하여 편찬하고 있고 천황의 인간선언을 일부러 게재하지 않는 등 천황 중심의 기재가 많다.¹⁰⁾ 결국 『신편일본사』는 다음 해인 1987년에 『신편 국민일본사』라고 하여 원서방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단행본 출판되었다. 이후 검정에 합격은 하지만 채택은 32개교의 8,900부에 그치는 낮은 채택률에 그쳤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정리하자면 명성사 역사교과서는 1980년대의 역사교과서 파동 이후 이른 시기부터 1990년대 들어 시작된 ‘새역모’ 운동을 견인한 썸이다. 그렇다면 ‘일본회의’의 전신인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궁극해진다.

먼저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는 1981년10월 ‘원호법제화실현국민회의’를 재편하여 발족했다. 원래 ‘원호법제화실현국민회의’는 1978년7월에 발족했다. ‘일본을 지키는 모임’과 함께 원호법(元号法)¹¹⁾의 법제화 실현을 목표로 운동을 했지만 원호법은 1979년6월6일에 성립되었다. 이후 해산의 움직임도 있었으나 1981년3월부터는 각지에서 ‘일본을 지키는 현민회의’ 결성이 이어지고 이를 토대로 ‘개헌/익찬’을 위한 조직으로서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일본을 지키는 모임’은 1973년6월에 이세(伊勢)신궁에서의 반공우파 종교단체들의 회합을 계기로 1974년부터 1997년까지 존재한 일본의 민간단체이다. 1997

9) 이에 대해 중국이 비판하자 당시의 수상 나카소네(中曾根 康弘)가 문부성에 검토를 요청하고 이례적인 재심의를 이루어졌다. 이를 ‘제2차 교과서문제’라고 부른다.

10) 『神社新報』(1986년7월14일자)의 1면 기사 참조.

11) 천황의 계승 때 마다 원호를 제정한다는 ‘일세일원(一世一元)’의 취지로 법제화.

년 5월30일에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합병하였다.

이상과 같은 전사를 가진 ‘일본회의’이기에 더더욱 명성사와의 관계가 궁금하다. 명성사와 일본회의의 관계는 명성사의 창업자인 이시이 고이치로가 ‘일본회의’의 부회장을 거쳐 2020년 현재 고문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¹²⁾ 또한 ‘일본회의’의 홈페이지의 ‘신간코너’를 살펴보면 소개하고 있는 책들이 거의 대부분 명성사에서 출간한 것이다.¹³⁾ 이로부터 자연스럽게 ‘일본회의’의 창립목적 중에 올바른 교육을 위한 교과서편찬사업 추진이라 한 것이 바로 『최신일본사』였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명성사와 ‘일본회의’는 그 뿌리가 깊으며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3. 『최신일본사』의 한반도관련 내용구성

그럼 본장에서는 『최신일본사』의 전체구성 중 한반도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전체구성 면에서 살펴보면 편(編), 장(章), 절(節), 소절(小節)의 네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내용 구성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제1편 원시/고대, 제2편 중세, 제3편 근세, 제4편 근대/현대이며, 편마다에는 제1편에 3장, 제2편에 2장, 제3편에 4장, 제4편에 7장, 해서 모두 16장 구성이다. 그리고 각 장마다 절은 1(4), 2(5), 3(4), 4(5), 5(5), 6(2), 7(3), 8(3), 9(3), 10(2), 11(3), 12(2), 13(4), 15(3), 16(4) 해서 모두 16장에 52개의 절로 구성 되어 있다. 또한 각 절마다의 소절을 편마다 합산하면 1편에는 56개, 2편에는 37개, 3편에는 36개, 4편에는 129개가 보인다. 나아가 이를 전근대사와 근대 이후로 나누어 합산하면 각각 129개

12) 주7) 참조.

13) <https://www.nipponkaigi.org/publication/book> ; 주4) 참조.

씩으로 총합은 258개의 소절이 있는 셈이다. 이로부터 계산하자면 전근대와 근대 이후의 소절의 개수를 정확히 의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258개의 소절 중에 한반도 관련 기사가 들어가 있는 것은 모두 50개이다. 이 50개의 소

절중에 원시/고대 부분은 24개이며 중세 4개, 근세 3개, 근/현대 19개이다. 이중 가장 많은 소절을 갖는 것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원시·고대 부분으로, '제1장 고대국가의 형성'의 소절 19개 중에서 10개, '제2장 율령국가의 발전'의 소절 18개 중에서 11개, '제3장 귀족정치와 국풍문화의 전개'의 소절 19개 중에서 3개의 소절에 한반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이상과 같이 대강의 체제를 감안하면서 여기서부터 실제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다만 그 50개의 소절을 여기서 모두 소개하는 것은 지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고대사편의 24개의 소절을 소재로 삼아 간단히 수정사항을 각주로 돌리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한다. 이하 <○○> 안의 내용은 소절의 제목을 나타낸다. 그리고 <○○> 뒤의 숫자는 명성사 교과서의 쪽수를 가리킨다.

①.[1장 고대국가의 형성-1절 일본문화의 시작]

<일본인의 기원> 14~15쪽

조몽(繩文)시대까지 일본인의 원형, 원일본인이 형성. 일본어에는 유라시아북부의 알타이어계통의 언어와 남방계의 언어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북방계와 남방계의 교류를 통한 혼혈이 발생, 혼혈에 의해 지금의 일본인이 형성.¹⁴⁾

②.[1장 고대국가의 형성-2절 농경사회의 성립]

14) 원일본인이라는 지나친 원형의 강조가 눈에 띈다 보니 조몽시대의 원일본인과 나중 야요이시대의 혼혈에 의해 현재의 일본인이 형성되었다는 표현이 애매성을 초래하고 있다.

〈야요이(弥生)문화의 성립〉 15~16쪽

(전)한은 무제 때인 기원전108년에는 조선반도북부에 걸친 지역을 직할령으로 하고 낙랑군 이하 4군을 설치. 일본도 기원전 3세기경에는 북구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 이 문화는 수도경작과 금속기 사용을 특징. 또한 적갈색토기(야요이토기)를 사용하는 문화를 야요이문화, 야요이시대라 한다.15)

③.[1장 고대국가의 형성-2절 농경사회의 성립]

〈사회생활의 변화〉 17쪽

사자(死者)는 집락 부근의 공동묘지에 매장하지만 규슈(九州)북부에서는 매장 전용으로 만든 옹관묘와 지석으로 상부의 평석을 지탱하는 지석묘에 매장. 이들 분묘 속에는 대륙제와 한반도제의 동경, 동검, 동모, 동과 등의 부장품이 대량으로 매장.16)

④.[1장 고대국가의 형성-3절 통일국가의 성립]

〈야마토(大和)조정과 야마타이(邪馬台)국〉 20쪽

『위지왜인전』의 내용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 위치에 대해서는 규슈설과 기내(畿内)설, 긴키(近畿)의 야마토(大和)조정과의 관련에서도 설이 나뉜다. 3세기 당시 소국가의 통일이 점차 진전된 것은 확실하고 그 최대세력이 황실의 선조를 중심으로 형성된 야마토조정. 3세기 후반부터 야마토지방을 중심으로 출현한 거대고분은 이 야마토조정의 세력의 크기. 각지의 고분도 야마토지방과 같은 전방후원분.17)

- 15) 한반도가 (전)한의 직할령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의해, 야요이문화와 한반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의 배제를 시도. 종래의 야요이문화와 한반도와의 관련성을 소극적으로 표현.
- 16) 비로소 분묘의 설명에서야 비로소 한반도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종래의 교과서의 기술과는 큰 차이임에 분명하다.
- 17) 야마타이국과 야마토조정의 관련성 강조. 특별한 증거의 제시 없이 야마토조정으로 단정, 결국 사실 전후의 역전을 무릅쓰고서라도 야마토조정과의 관련을 유도하려는 조급함이 노정. 또한 전방후원분이라는 양식상의 공통

⑤.[1장 고대국가의 형성-3절 통일국가의 성립]

〈일본의 건국전승〉 21~22쪽

통일국가의 전승은 8세기의 편찬사서인 고사기와 일본서기. 이 사서에 의하면 야마토조정(大和朝廷)의 시조는 신무(神武)천황으로 동천(東遷)의 전승은 야요이시대의 도작과 동경(銅鏡)의 전파루트와 흡사. 또한 10대 천황(崇神)은 4인의 황족 장군을 4도(北陸, 東海, 西島, 丹波)에 파견. 12대 경행(景行)천황은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日本武尊)를 파견하여 규슈의 구마소(熊襲)와 동국의 에미시(蝦夷)를 정토. 이들 전승은 야마토조정을 중심으로 추진된 국내 평정의 역사가 바탕에 깔린 것이다.¹⁸⁾

⑥.[1장 고대국가의 형성-3절 통일국가의 성립]

〈조선반도로의 진출〉 22~23쪽

3세기부터 4세기에 걸쳐 일본의 국내통일이 진전. 중국은 삼국시대 이후 280년에 진이 통일하지만 곧 남북조의 분열로 혼란. 한반도는 삼국시대. 야마토조정은 4세기 후반에 백제와의 우호관계, 반도의 철과 선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한반도에 진출, 아직 미통일 지대인 낙동강 하류의 가라(임나)에 세력을 구축. 고구려 ‘호태왕비문’에 의하면 왜인은 백제와 연대하여 신라에 원정군을 보내 남하하는 고구려와 교전. 5세기에는 중국의 남조(송과 제)와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하는데 『송서왜국전』에 의하면 조선반도 남부의 제국에 대한 군사지휘권을 갖는 것을 의미

성의 문제로 모든 고분을 야마토식으로 몰아가려는 의도. 당시에는 어울리지 않는 조정, 황실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유별남. 마지막으로 왜 혹은 왜국을 야마토조정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8)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대한 사료 비판이 전제 되어 있지 않음. 이미 신화이자 설화인 건국신화에 대한 많은 종래의 전승 비판의 연구사가 미반영. 본문에서 전승 설화를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일관되게 야요이시대와의 접목을 통해 야마토조정의 역사로 수렴되도록 유도. 내용 중에 관련하는 ‘칼람’을 따로이 설정해 건국신화를 자세히 설명,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양사서의 건국 설화 전승담을 역사적 사실로 유인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하는 작호를 원함.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응신(應神)천황과 인덕(仁德)천황의 능묘라고 전해지는 거대 고분의 존재.¹⁹⁾

⑦.[1장 고대국가의 형성-3절 통일국가의 성립]

〈씨성제도〉 23~24쪽

5세기말에 야마토조정의 대왕(나중의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의 구조가 정비, 조정에 봉사하는 여러 호족은 동족집단인 씨(氏)와 씨상(氏上)으로 구성, 조정은 각씨의 가계와 직능에 따라 성(姓)을 수여하여 통솔. 성에는 臣(오미), 連(무라지), 君(기미), 直(아타이) 등이 있고 大臣, 大連을 중심으로 국정 수행. 호족은 직능집단인 部(베)를 통하여 조정에 봉사.²⁰⁾

⑧.[1장 고대국가의 형성-4절 고대문화의 형성]

〈대륙문화의 전래〉 25~26쪽의 자세한 설명은 제4장서 다루기로 한다.

⑨.[1장 고대국가의 형성-4절 고대문화의 형성]

〈고분문화의 변용〉 26~27쪽

고분 내부의 석실은 종래의 수혈식 석실에 대신하여 5세기 중반부터 대륙의 영향을 받은 횡혈식 석실이 만들어지게 되고 6세기에는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횡혈식 석실의 현실 내부는 부장품 외에도 채색벽화가 그려진 장식고분 형태. 7세기 중반에는 분묘의 크기에 제한을 두는 제

19) 중국은 통일에서 분열로 혼란의 와중, 한반도는 각축전, 그 속에 야마토조정은 한반도남부로 '진출'했다는 종래의 '임나일본부' 관련 연구 성과를 답습. 사료로 든 (일본서기) 및 광개토왕비문과 송서왜국전에 관한 근래의 관련 연구사가 배제되어 있다. 특히 '한반도남부에 대한 군사지휘권을 의미하는 작호를 원함'이 대표적으로 명성사 역사교과서 서술의 단면, 즉 왜국의 한반도 우위관이 잘 드러나 있다. '왜인'이라는 단어를 부득이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자연성, 고고학적 특징인 거대고분을 야마토조정의 통일과 연계하여 설명하는 점은 비약에 가깝다.

20) '대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전후의 천황 용어의 사용과 배치. 종래의 연구사에 의하면 '씨성'과 '부'의 원류가 한반도와 관련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고 있다.

도가 만들어져 고분문화는 종언. 일상생활은 야요이토기 계통에 속하는 적갈색의 土師器(하지키)와 5세기 중반 경부터 조선반도에서 전해진 단단하고 회색인 須惠器(스에키)도 사용. 埴輪(하니와)의 복장.²¹⁾

⑩.[1장 고대국가의 형성-4절 고대문화의 형성]

〈민족문화의 성장〉 27~28쪽

농경에 관한 의례(神祇)제사, 농작을 바라는 봄의 祈年(도시고이)제와 수확을 축하하는 가을의 新嘗(니이나메)제, 禊(미소기)와 祓(하라에), 太占(후토마니)와 盟神探湯(구카타치), 大神(오미와)신사, 伊勢(이세)신궁, 出雲(이즈모)대사 등.²²⁾

⑪.[2장 율령(律令)국가의 발전-1절 아스카의 정치와 문화]

〈야마토조정 의 동요〉 30~31쪽

6세기에 야마토조정에서는 황위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고 유력 호족들도 이에 관여하여 항쟁을 일삼았다. 527년의 쓰쿠시(筑紫)국조 磐井(이와이)의 반란, 512년의 大伴金村(오토모노 가나무라)에 의한 '임나4현'의 지배, 562년 '임나'의 멸망, 物部(모노노베)씨와 蘇我(소가)씨의 대립, 589년 수(隋)의 통일 등.²³⁾

21) 대륙의 영향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한반도에서의 문화전파 사실을 비켜간다. 종래의 연구사에서는 황혈식 석실의 경우 고분의 형태는 말할 것도 없이 부장품과 연계하여 또한 장식고분의 경우도 한반도와의 관련이 깊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기도 한반도 남부와 직접 관련하는 야요이 계통의 토기인 하지키와 이후 5세기 중반에 한반도로부터 전해진 스에키라는 것도 역시 당시의 일본의 문화가 한반도와 관련성을 부정하고서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22) 아무리 현재도 남아 있는 일본 전통 문화의 속성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통일국가를 둘러싸고도 설왕설래가 있는 고대국가의 형성 단계에서 “민족”을 강조한다든가 “민족문화” 운운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23) 6세기의 야마토조정은 앞 시대의 설명과 달리 아직 통일된 정치조직을 갖고 있지 못한 듯하다. 그럼에도 앞에서는 한반도 여러 나라보다 우위에 선 것 같은 야마토조정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는 사실관계와 부합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 이유는 6세기의 일본열도는 한반도 정세와의 관련 속에서

⑫.[2장 율령국가의 발전-1절 아스카의 정치와 문화]

〈성덕태자(聖德太子)의 치적〉 31~32쪽

추고(推古)조의 섭정인 성덕태자에 의해 국정의 개혁과 문화가 융성. 603년 관위12계, 604년 헌법17조, 620년 『天皇記』와 『國記』 편찬, 『수서』, 600년/『일본서기』 607년의 견수사, 608년 수의 사신(裴世清), 이는 대등외교.²⁴⁾

⑬.[2장 율령국가의 발전-1절 아스카의 정치와 문화]

〈아스카(飛鳥)문화〉 32~34쪽

594년 불교홍룡의 조(詔), 태자는 고구려 승 혜자(惠慈)에게서 불교를 배우고 불교 경전의 주석서 「三經義疏」 저술, 백제 승 관륵은 역(曆). 소아씨의 아스카사(法興寺라고도), 태자의 사천왕사(四天王寺) 및 법륵사(斑鳩寺라고도), 하타(秦)씨의 광륵사(廣隆寺) 등의 씨사. 아스카사와 사천왕사는 대륙 전래의 가람배치, 법륵사는 독특. 불교 신앙이 성해지자 대륙과 반도의 영향을 받은 불상 등장. 고구려 승 담징이 그림도구와 종이, 먹의 조제법. 당시의 유품에는 玉蟲廚子(다마무시즈시), 天壽國繡帳(텐쥬코쿠슈쇼) 등.²⁵⁾

계속 엮히락뒤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 정돈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무엇보다 ‘임나’에 관한 처리가 야마토조정이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백제와의 관계 속에서 부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에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 24) 성덕태자라는 초능력자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성덕태자가 실존인물인지를 둘러싸고 여러 설이 분분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종래의 연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성덕태자를 섭정이면서 태자로 나아가 국내는 물론이고 외교적인 면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거둔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은 다시 말해 당시의 발전 단계와는 전혀 별종의 탁월한 인물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성덕태자에 대한 과잉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 25) 고대문화의 정수인 불교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서술의 일관성이 없다. 고구려와 백제의 승려를 통해 불교를 전수받아 각각 씨사를 건립하는데 어느 경우는 대륙 전래, 또 어느 경우는 대륙과 한반도로부터 전수, 그림 도구는 고구려 승려에게서 전수, 그런데 유물의 문양은 이집트와 그리스로부터 영

그리고 『칼럼 ; 일본, 천황호의 유래』에서는 “7세기 초에 천황호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천황호는 7세기 후반이라는 설도 있지만, 종교적 권위를 띤 최고군주의 칭호로 그 전에 사용된 듯하다. 이러한 일본과 천황 칭호를 사용하는 배경에 큰 정치적 개혁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강한 국가적 자각이 있었다.”고 하고 있다.²⁶⁾

⑭.[2장 율령국가의 발전-2절 대화의 개신(大化改新)]

〈내외의 정세〉 34~35쪽

수에 이어 당이 건국. 당은 균전제, 조조용제 등의 율령제도로 강력한 중앙집권국가. 한반도3국은 통일에의 움직임, 소아씨 세력 강성.²⁷⁾

⑮.[2장 율령국가의 발전-2절 대화의 개신]

〈대화개신〉 34~35쪽

수에 파견된 유학생들이 당에서 귀국, 중대형(中大兄)황자는 중신겸족(中臣鎌足)과 유학생들과 같이 소아씨 타도(을사의 변). 국정개혁을 시도하는데 연호 대화, 나니와(難波) 천도, “개신의 조”(공지공민, 중앙과 지방의 행정구획 및 군사 교통제도 정비, 호적과 계장을 만들고 반전수 수법, 새로운 조세제도 확립) 등 이를 “대화개신”.²⁸⁾

향 등 일관성 없는 서술이 혼재하고 있다. 이는 불교의 유입루트가 한반도라는 확실한 사실을 애써 감추려다 보니 생긴 현상으로 명성사 역사교과서의 대표적인 사실 왜곡으로 여겨진다.

- 26) 국호와 군주호의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국호 일본과 군주호 천황의 호칭 사용은 7세기말 설이 유력하다. 두 칭호의 사용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동아시아에서 대내외적 조건이 부응하는 시기가 7세기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과 천황이라는 용어의 사용 배경에 국가적 자각이 있었다는 식의 표현은 고대사의 설명에 적합하지 않은 듯하다.
- 27) 동아시아정세의 급변속에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동란의 움직임이 한반도를 거쳐 일본열도로 밀려드는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 지극히 단선적 서술에 그치고 만다. 이는 명성사 역사교과서의 특징 중 하나로서 중국의 상황변화에 응해 한반도가 변한다는, 즉 한반도의 주체성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 28) ‘을사의 변’과 ‘대화개신’의 배경에 한반도 제국과의 다양한 접점에 대한 이

⑩.[2장 율령국가의 발전-2절 대화의 개신]

〈백촌강(白村江)전투〉 35~36쪽

654년 중대형황자는 나니와에서 아스카로 천도, 당과 신라가 660년 백제 사비성을 함락, 백제의 유신들이 구원 요청, 백제 부흥을 지원하기 위해 제명(齊明)천황은 구원군을 파견하지만 663년 ‘백촌강전투’에서 패배하자 백제의 왕족 이하 다수가 망명. 이 패전에 의해 반도에서의 발판을 잃었다. 중대형은 당과 신라의 침입에 대비해 ‘조선식산성’을 쌓았다.29)

⑪.[2장 율령국가의 발전-3절 율령체제의 성립]

〈율령국가의 형성〉 36쪽

667년 중대형은 도읍을 아스카에서 오우미(近江)의 오쓰(大津)궁(동해, 동산, 북쪽 삼도와 통하는 교통의 요충으로 내륙부에 있어 국방상 유리한 위치)으로 천도하여 정식으로 즉위. 671년 천지가 사망하자 황위 계승을 둘러싸고 대우(大友)황자와 대해인(大海人)황자 사이에 싸움이 발생, 672년 ‘임신의 난(壬申亂)’. 대해인황자가 승리하여 아스카키요미하라(飛鳥淨御原)궁에서 즉위 천무(天武)천황. 천무는 황친(皇親)정치, 8

해가 필요하다. 수에서 당으로, 이에 자극 받아 일본 내에서도 변고가 일어났다는 식의 다시 말해 한반도 제국과의 관련의 누락이 가져왔다는 식의 지극히 평면적인 서술을 사실로 기술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개신의 조”의 진위를 둘러싼 전후에 걸친 다양한 시선의 연구사를 무시하고 있는 부분도 이 교과서의 맹점이다.

- 29) ‘대화개신’을 주도했을 중대형황자가 무슨 이유로 개혁을 실현하는 무대로 삼았던 나니와를 떠나 654년에 다시 아스카로 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결락되다 보니 그저 국내적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게 된다. 또한 ‘백촌강전투’에 참전하는 이유도 백제의 멸망에 의해 백제의 유신들이 원했기에 출전했다는 서술은 ‘백촌강전투’에 참전 배경은 물론 이후 전투의 경과와 결과를 설명하는데 부족할 수밖에 없다. 대외적인 동아시아 각국의 특히 한반도 제국과의 입체적인 설명이 더해지지 않고는 이해가 불가능한 전투로 그치고 만다. 이뿐 아니라 ‘이 전투에서의 패전으로 인해 반도에서의 발판을 잃었다’는 부분은 이전 한반도에서의 왜국의 활동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엇보인다. 이후 ‘조선식산성’의 조영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이다.

색의 성(姓), 국사 편찬 개시. 지통(持統)은 아스카키요미하라영을 시행, 등원경(藤原京) 조영.³⁰⁾

⑱.[2장 율령국가의 발전-3절 율령체제의 성립]

〈백봉(白鳳)문화〉 39~40쪽

천무와 지통기의 새로운 시대의 분위기는 청신하고 고매한 문화가 탄생, 대화의 개신 이후 등원경 시대까지를 백봉문화라 한다. 견당사(遣唐使)에 의해 가져온 초당(初唐)문화의 영향으로 원숙한 작품. 흥복사 불두(佛頭), 약사사 동탑, 법륜사금당벽화, 다카마쓰(高松)고분벽화, 문예가로서는 가키노모토노히토마로(柿本人麻呂)와 누카타(額田)왕 등.³¹⁾

⑲.[2장 율령국가의 발전-4절 평성경(平城京)의 시대]

〈견당사〉 42쪽

630년 제1차 견당사, 천무/지통시대 중단, 702년(대보2) 부활, 894년 완전 중단될 때까지 19차례 임명(도해는 15차례). 대륙의 문화를 배우고 귀중한 문물을 장래. 신라는 대등의 태도를 나타내고 속국시하던 일본과 저어가 생김, 하지만 무역의 이익을 위해 계속 내항, 발해는 당과 대립하면서 727년 이후 일본과의 교역 활발.³²⁾

30) '임신의 난'의 이해를 국내 문제로 한정해 버리는 것에 의해 놓치는 것이 너무 많다. 고대일본 최대의 외정인 '백촌강전투'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일어난 고대일본 최대의 내전은 전혀 관련 없는 별개의 사건이었을까. 아니면 외정 이후의 전후처리의 문제로서 재음미할 수는 없을 것인지. 당과 신라의 침입 가능성,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 가능성, 일본열도로 들어온 백제인과 고구려인의 문제, 당과 신라의 분열 가능성 등등 다종다양한 문제의 복합적 해결책으로서 '임신의 난'을 조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1) 이 시기는 몇 차례 없었던 견당사의 왕래를 통한 교류보다는 절대적으로 신라와의 교류가 많았다. 통일신라의 자신감이 반영된 교류가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일본열도 내에는 이전의 선진국이었던 백제와 고구려로부터 많은 유민들이 있었고 이들에 의해 일본열도의 문화수준은 중앙과 지방의 구분 없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를 맞았다. 이러한 변화가 초래한 것은 국호 일본과 군주호 천황호의 창안이었을 것이며 이는 동아시아세계에서의 신생 일본의 등장이라 여겨진다.

㉔.[2장 율령국가의 발전-5절 천평(天平)문화]

〈記紀의 편찬〉 46쪽, 의 설명은 제4장으로 미루니 거기서 참고하기 바란다.

㉕.[2장 율령국가의 발전-5절 천평문화]

〈교학, 문예〉 46~47쪽

불교는 남도육종, 진호국가, 유학생, 감진 등. 유교는 중앙에 대학, 지방에 국학을 두고 경서, 율령, 서도, 산술 등. [회풍조]는 가장 오래된 한시집. [만엽집]은 4500수, 山上憶良(아마노우에노 오쿠라), 山部赤人(야마베노 아카히토), 大伴旅人(오토모노 다비토)/家持(야카모치) 등. 만엽(萬葉)가나로 표기.³³⁾

㉖.[3장 귀족정치와 국풍문화의 전개-1절 율령정치의 재건과 흥인/정관문화]

〈헤이안(平安)의 새로운 정치〉 50~51쪽

광인(光仁)천황, 환무(桓武)천황의 784년 장강(長岡)경으로 794년에 다시 헤이안경으로 천도. 蝦夷(에미시)의 반란과 797년 坂上田村麻呂(사카노우에노 다무라마로)에 의한 奥羽(오우)지방 개척.³⁴⁾

32) 고대일본의 대외관계사 서술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견당사의 지나친 강조일 것이다. 일본학계는 19차 임명 중에 15차만 바다를 건넌 견당사가 고대일본에 초래한 영향에 대해 시간적으로는 20년의 페이스로 왕래하던 견당사를 훨씬 많은 횟수의 견신라사와 견발해사에 대한 평가보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이는 8세기를 중심으로 또 다른 한반도 무시를 넘어 중국문화에 대한 事大의 사고가 아닌지 생각한다. 이는 일본에서 중국으로 간 유학생과 유학생의 경우와 신라나 발해에서 중국에 간 유학생에 대한 평가에서도 동일할 것이다.

33)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이후 건너온 한반도계 유민들과 그 후예들은 익숙한 문자지식과 선진문화에 가까웠던 탓으로 백봉문화와 천평문화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대진궁 시대 대우황자와 가까운 사람 중에 관련자가 많다. [회풍조](오미조에서 나라조까지의 64인의 작자에 의한 116수의 시)와 [만엽집]에 영향이 보인다.

34) 환무천황은 백제계 여성을 어머니로 두고 백제 멸망 이후 건너온 백제계

㉓.[3장 귀족정치와 국풍(國風)문화의 전개-3절 국풍문화의 융성]
 〈대외관계의 변화와 국풍문화〉 58~59쪽

당은 안록산과 사사명의 반란(755~763년) 이후 쇠퇴하기 시작. 송과는 정식 국교를 갖지 않고 상선이 규슈에 사무역으로 왕래, 승려가 구법활동. 발해는 926년에 요에 의해 멸망. 한반도에서는 신라에 대신하여 고려가 통일. 헤이안 중후기에는 일본 독자의 문학과 미술 등이 생겨나고 후세의 문화에 큰 영향, 이를 국풍문화³⁵⁾

㉔.[3장 귀족정치와 국풍문화의 전개-3절 국풍문화의 융성]
 〈국문학의 발달〉 59~60쪽

문학사 상의 황금기, 假名(가나)의 발달. 가타가나와 히라가나는 10세기 초에 형태가 일정하게 되었다. 와가(和歌)는 905년에 紀貫之(기노 히라유키)에 의해 『고금화가집(古今和歌集)』(후략)³⁶⁾

이상과 같이 고대사편의 24개의 사례에 대해 각각 관련 내용을 적시하고 또 그 내용마다 각주를 통해 이 교과서가 갖는 서술상의 문제점을

왕족 출신들의 후예인 백제왕씨를 ‘짐의 외척’이라 하여 우대, 이러한 백제왕씨에 대한 우대책은 환무의 후예들인 차아와 인명천황 때까지 유지. 환무와 그 아들 천황들은 백제왕씨가 집주하고 있던 가타노에 유럽, 천신제사, 백제악과 백제무를 구실로 자주 방문, 交野(가타노)의 유적은 지금도 枚方(히라카타)시에 백제사의 사적과 백제왕신사로 남아있다.

35) 당으로의 해상 왕래 중에는 신라의 해상 세력의 도움을 받은 케이스가 많았다. 특히 해상왕 장보고 선단의 도움은 원인(圓仁)의 기행문에 상세하다. 9세기에 들어 공식적인 대외교류는 중단되었지만 이후 사적인 교류는 중단 없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언급 없이 일본의 독자적 발전으로서 국풍문화 혹은 등원문화를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36) 최근 가타가나의 원형은 신라 불경을 읽는 데서 나왔다고 하는 설이 있다. 각필(角筆)과 관련하여 참고가 필요하다. 나라(奈良)시의 동대사가 소장하는 「大方廣佛華嚴經」은 740년 경 한반도의 신라에서 전해져왔다고 보이는데 히로시마대학 명예교수인 고바야시(小林芳規)교수는 이 자료에 가타가나의 흔적이 보인다고 한다(『角筆のひらく文化史-見えない文字を讀み解く』, 岩波書店, 2014 참조).

지적했다. 이를 통해 명성사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서술이 갖는 문제점을 고대 편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각각의 문제점을 드러내 보였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고대 편에 한정하지 않고 이 교과서가 갖는 전반적인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보기로 하자.

4. 『최신일본사』의 한반도인식 사례 분석

본장에서는 명성사 역사교과서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주는 다음의 네 가지 사항, “영토문제, 국민과 국가의 문제,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대한 이해의 문제, 한반도 무시사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자. 시기적으로는 비록 근대가 먼저 나오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만 앞장에서 고대사편의 24개 소절을 일제히 점검한 것에 비추어 이러한 시대상의 역전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영토상의 문제’부터 들여다보자. 이 부분은 명성사 역사교과서 한반도관련 서술에 있어 마지막인 50번째가 된다.³⁷⁾

㉟.[16장 현대사회와 문화의 창조-4절 현대의 세계와 일본]

〈일본의 과제와 자립에의 선택〉 270쪽

냉전의 종결과 페르시아만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점령 중에 만들어진 전후 일본의 틀에 큰 변화, 60년 만에 교육기본법이 개정, 일본고유의 문화가 근대화와 저속한 유행의 흐름에 잊히게 되는 것을 걱정, 영토문제도 과제, 북방영토는 러시아에 점령, 시마네현의 죽도는 한국에 불법 점령, 오키나와현의 침각열도에 대해서도 중국 등이 영유권 주장, 주변 해역에의 영해 침범이 반복해 일어남. 평성19년 9월 고이즈미수상이 김

37) 앞장과 마찬가지로 〈○○〉안의 내용은 소절의 제목을 나타낸다. 그리고 〈○○〉뒤의 숫자는 명성사 교과서의 쪽수를 가리킨다.

정일총서기와 평양에서 회담하여 일본인 납치자 문제 부각,(후략)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1997년 결성된 ‘일본회의’의 방침에 따라 만들어진 출판사인 명성사는 2002년 문부과학성의 교과서검정을 통과한 때부터 “독도(다케시마)”를 명확히 일본의 영토로 기술한 최초의 교과서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아주 드러내놓고 “러시아가 점령한 북방영토, 중국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침각열도와 더불어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두 번째로는 ‘국민과 국가’에 대한 이해 문제이다. 명성사 역사교과서는 국민 혹은 국가, 국가의식, 국가적 자각이라는 표현을 도처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용처로서 등장하는 것이 중세편의 맨 처음 가마쿠라막부의 설명에서 보인다.

㉔.[4장 무가정치의 성립과 문화의 신기질-4절 원구와 무가사회의 동요]

〈가마쿠라(鎌倉)조의 국민의식〉 88쪽

원의 습래라는 국난을 거쳐 조정과 막부는 일치하여 대응하고 국가의식을 고양... 龜山(가메야마)상황은 篁崎(하코자키)궁에 ‘敵國降伏’의 글을 봉납하고 이세신궁에는 기원문을 보내 국토의 안태를 기원. 일본은 신국이라고 하는 신님을 강화(神國사상). 헤이안시대에 유행한 말법(末法)사상과 百王설(국왕은 백대로 끝이 난다는 사상)으로 『愚管抄』에 나타남. 『神皇正統記』와 『釋日本紀』는 이를 부정)은 영향력을 잃고 국가적 자각이 높아졌다.(후략)

여기에서는 도처에 보이는 ‘국민의식’, ‘국가의식’, ‘국가적 자각’의 표현은 극히 근대적인 발상이다. 일본이라는 근대국가의 사상적 기반을 원구(元寇)의 문제에서 찾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 몽골의 내습을 당시 13세기의 조정과 가마쿠라막부의 대외적 과제로 간주하기 보다는, 근대 이후 일본이 맞닥뜨리는 대외적 모순과 혼동하여 오버랩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된다. 이러한 이해야말로 일본역사를, 특히 전근대의

역사적 사실을 근대 이후의 국민국가적 과제로 치환시켜 버릴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원래 ‘국민’을 구성요소로 하는 ‘국민국가’의 성립은 유럽의 ‘1848년 혁명’, 즉 19세기 중반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³⁸⁾ 이후 일본은 1868년의 메이지유신에 의해 대일본제국이라는 ‘국민국가’가 성립한다. 이전의 에도시대 ‘막번(幕藩)체제’ 하의 중앙집권이란 번의 다이묘(大名)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지,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의 의식은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일본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천황이 필요하게 되고, 그 결과 천황을 중심으로 ‘일국만민’의 의식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³⁹⁾

세 번째로는 “고사기 및 일본서기”에 대한 이해이다. 여기서도 8세기의 정치 집행자인 귀족에 대해 국가의식 운운 하면서 그 국가의식이 투영된 사서가 바로 고사기와 일본서기라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㉑[2장 율령국가의 발전-5절 천평문화]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편찬〉 46쪽

나라시대는 성당(盛唐)문화의 영향으로 평성경을 중심으로 국제색 풍부한 귀족문화가 꽃을 피웠다. 당시의 귀족은 진취적이고 개성이 풍부하여 국가의식도 강했다. 그 일단은 천무천황 때 착수된 역사서 편찬으로 나타나고 712년에 『고사기』, 720년에 『일본서기』가 완성. 기·기는 일본의 건국 유래와 국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서기』는 외국을 의식하고 편찬된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당시의 귀족은 진취적이고 개성이 풍부하여 국

3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의 독립, 냉전의 붕괴에 따른 급속한 글로벌화의 와중에 ‘국민국가’에의 모순과 비판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상상의 공동체’라는 절묘한 말로 정의한 것은 베네딕트 앤더슨이었다.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출판, 2003; 원저는 1983) 참조.

39) 宮台眞司·宮崎哲弥, 『ニッポン問題. M2: 2』, インフォバーン, 2003 참조.

가의식도 강했다.”는 표현이 바로 명성사 교과서의 집필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진심일 것이다. 고대사에서 국가의식이란 말이 갖는 모순도 그렇지만 당시를 설명하면서 현재의 원망(原望)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결국 그 ‘국가의식’의 정수가 많은 모순을 갖는 [일본서기]의 편찬으로 나타났음을 “그 일단은 천무천황 때 착수된 역사서 편찬으로 나타나고”와 같이 고백하고 있다.

『일본서기』의 편찬에는 백제멸망과 더불어 전해진 백제3서라 말해지는 한반도 기록과 더불어, 사서를 이루는 다양한 조정의 기록, 호족의 전승, 중국과 조선의 기록 등을 아울러 정식 한문에 의해 편년체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한문 숙련자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들 한문 숙련자들은 백제와 고구려 멸망에 따른 귀족 계급을 포함한 한반도 유민의 존재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일본서기』가 “외국을 의식하고 편찬된 것”임을 볼 때 『일본서기』에 대한 인용은 엄정한 사료비판을 거치지 않으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한반도 무시 사관”이 도처에 보인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앞장에서도 언급한 다음의 ⑧항이다.

⑧[1장 고대국가의 형성-4절 고대문화의 형성]

〈대륙문화의 전래〉 25~26쪽

고분시대 중기인 5세기 전후로 조선반도의 동란을 피해 도래하여 정주하는 자가 많았다. 이들을 귀화인(도래인)이라고 부른다. 야마토조정은 제철, 제도, 제직, 피혁 가공, 금속공예 등의 우수한 기술을 가진 귀화인을 직업집단(品部)으로 조직하고 기내와 그 주변에 거주시킴. 그 외에도 한자를 일본에 전한 귀화인은 기록, 출판, 외교문서 등 작성. 5, 6세기에 만들어진 동경과 큰칼 명문. 황실계보인 제기와 옛 설화전설인 구사(舊辭) 정리. 6세기의 백제에서 오경박사. 의박사, 역(易)박사, 역(曆)박사 등. 6세기 후반에는 백제를 통하여 불교가 수입.

이상의 교과서 내용과 같이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건너온 사람들을

부르는 일반적 칭호로서 도래인보다 귀화인을 고수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70년대 이래 귀화인보다는 도래인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연구사의 무시는 물론, 일방적으로 해도 좋을 만큼 한반도를 통한 다양한 문화전달(양잠, 문필, 제철, 제도, 제직, 피혁과 금속 가공, 한자, 박사, 불교 등등)의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야마토조정 우위사관, 즉 일본열도와 한반도 제국간의 관계에서 상하, 우열의식을 견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다 보니 서술의 껍이 생겨나고 이를 떼우지 못해 건강부회가 동원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고대사는 물론이고 책의 전반에 걸쳐 종래의 전후 일본역사학계가 성취해온 연구 성과 중에 한반도와 관련하는 충실한 연구 성과를 무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명성사 역사교과서는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에서의 문화전달이 분명한 것임에도 애써 한반도에서의 문화전달 루트를 부정하려 한다. 이러한 의도는 ‘국가, 국민, 국가적 자각’의 용어 사용에서 볼 수 있듯이 근대 이후의 한반도에 대한 상하관념, 우열인식을 전근대에 투영하다 보니 생겨난 현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5. 맺음말

앞장의 “영토문제, 국민 및 국가, 고사기와 일본서기, 한반도 무시” 등에 보이는 한반도 인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일까? 한반도에 대한 우위관 혹은 한반도 무시 사관을 놀랍게도 조선총독부 시절의 식민지 조선에서의 역사교과서에도 보이던 인식과 매우 흡사한 것에 놀라게 된다.⁴⁰⁾

40) 주2) 송완범의 논고 중에 2015, 2018 참조. 조선총독부역사교과서는 고대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한 것을 역사적 실재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대일본이 ‘임나일본부’라는 기관을 두고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고 하는 ‘임나일

조선총독부역사교과서는 당시 일본의 역사교육에서 조선이란 어떠한 존재로 자리매김 되고 있었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여 무엇을 왜곡시켰는지가 명료하게 나타난다. 더불어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한일 간의 역사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금년은 ‘전후 75년’이다. 1945년 이후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쇼와(昭和) 천황의 ‘성단(聖斷)’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1945년을 ‘패전’ 혹은 ‘종전’으로 볼 수도 있고, 그 이전과의 ‘단절’ 혹은 ‘연속’을 이야기 할 수도 있다. 일본군위안부, 남경대학살 등의 일본에 불리한 사실은 누락시키고 전쟁에서의 피해만 강조하다보면 결국 ‘천황중심사관’이며 ‘침략주의사관’이며 ‘독선적 문화우월주의사관’이라는 비판과 만나게 된다.

덧붙여 명성사 역사교과서인 최신일본사는 1980년대 이후 일본역사교과서문제의 가장 원조에 해당하는 신편일본사의 내력과 같은 것이었다. 또한 신편일본사의 체제와 내용을 분석하는 한 앞에서 언급한 엄정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래는 제3장의 해설을 본문에 넣고자 했으나 본문이 너무 비대해져서 주로 돌리게 된 점, 그리고 한반도 관련 기사 50개 전부를 소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런 형식적인 불비와 아울러 논의 전개에서도 무리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는 추후의 기회에 보강하기로 하면서 이만 각필한다. 널리 많은 질정을 바란다.

논문투고일 : 2020. 04. 14 심사완료일 : 2020. 05. 09 게재확정일 : 2020. 05. 25

본부설’에 대해 공을 들여 설명한다. 이는 ‘임나일본부설’을 역사적 사실로서 가리키는 것에 의해 식민지 백성인 한반도인들을 속박시키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7세기말의 백제로의 구원군 파견은 ‘임나일본부’ 시절의 은덕이었으며, 이는 또한 4~6세기의 한반도를 고대일본의 식민지로 삼았다는 사실의 반추에 다름 아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송완범 외, 『저팬리뷰2010』, 문, 2010
- 송완범 외, 『저팬리뷰2012-3.11 동일본대지진과 일본-』, 도서출판 문, 2012.
- 장신 편, 『조선총독부교과서총서(역사편)』 1-6권, 청운, 2005.
- 하종문 역(永原慶二 저), 『20세기 일본의 역사학』, 삼천리, 2011.
- 한국사연구회/한일관계사학회 편, 『일본 역사서의 왜곡과 진실』, 경인문화사, 2008.
- 한일관계사학회 편 『전환기 일본교과서 문제의 諸相』, 경인문화사, 2010.
-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편, 『(제2기)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1-7권, 경인문화사, 2010.
- 藤生明, 『ドキュメント日本會議』(ちくま新書1253), 筑摩書房, 2017.
- 滋賀大學附屬図書館 編, 『近代日本の教科書のあゆみ』, サンライズ出版, 2006.
- 小森陽一 외 編. 『歴史教科書何が問題か』, 岩波書店, 2001.
- 中村哲, 『東アジアの歴史教科書はどう書かれているか』, 日本評論社, 2004.
- 歴史教育者協議會 編, 『歴史教育50年のあゆみと課題』, 未來社, 1997.
- VAWW-NETジャパン 編 『ここまでひどい「つくる會」歴史・公民教科書』, 明石書店, 2001.

2. 논문

- 나행주,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역사관과 고대사 서술」, 『동국사학』 51, 2011.
- 동북아역사재단, 『신편 새 역사교과서(自由社, 2009) 분석보고서』, 2009.
-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대회자료집, 『2011년도 김정통과 일본중학교교과서 심층분석』, 2011.
- 서보경, 「일본 학교 역사교과서 고 한일계 기술에 한 분석-2015년도 김정 통과본을 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51, 2016.3.
- 송완범, 「일본국정역사교과서로 보는 ‘민족주의’」, 『일본사상』 14, 2008.
- 송완범, 「일본근대검정교과서의 고대 한반도관련기술 분석」, 『일본연구』 29,

2018.

- 신형식, 「일본역사 교과서의 전근대관련 서술의 문제점」, 『백산학보』 61, 2001.
- 연민수,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古代史 서술과 歷史認識」 『한국사연구』 129, 2005.
- 이영식, 「최근 한일 국사교과서의 고대사 서술」 『동북아역사논총』 17, 2007.
- 이충호, 「일본 역사교과서 서술체제의 변화」 『역사교육론집』 32, 2004.
- 장신, 「한말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발행제도와 역사교과서」 『역사교육』 91, 2004.
- 한일관계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일본 역사교과서의 분석과 역사교육의 실태』, 2011.
- 허재영,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교과서 정책과 교과서 편찬 실태」 『동양학』 46, 2009.
- 현명철, 「한일 역사 갈등의 뿌리를 찾아서」 『한일관계사연구』 40, 2011.

【ABSTRACT】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Japanese history textbook published by
Meiseisha(明成社)

Song, whanbhum

This study examined The Latest Japanese History(最新日本史), a high school history textbook that was published in 2012 by a Japanese publishing company named Meiseisha (明成社) after being approved by Japan's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 文部科學省) in 2002. Why does this study focus on this history textbook? The textbook has had great reverberations in Korean society since it obtained the approval of MEXT in 2002 because it was the first textbook to describe Dokdo (also known as Takeshima in Japan) as a Japanese territory. So why were such explicit statements about Dokdo made in this history textbook published by Meiseisha? Through the process of exploring this question, a couple of findings were made. First of all, through a survey on the relation between of Meiseisha and the Japan Conference(日本會議), it was found that the two institutions are closely related. It was also possible to determine the structure of all contents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 described in The Latest Japanese History. By detecting and classifying examples of the recognition of Korean peninsula in The Latest Japanese History, the direction of the

Japanese history textbook published by Meiseisha could be analyzed. Through this process, it was possible to clarify that the Japanese history textbook published by Meiseisha in 2012 is a measure of how Japanese society has politically moved to the right after the Great East-Japan Earthquake in 2011.

【Key words】

Meiseisha, Japan Conference, The Latest Japanese History,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 recognition of the Korean Peninsula